

신지애, 日투어 최다 상금 대회 우승

개막전 우승 이어 올 시즌 투어 2승째...JLPGA 28승째 달성



신지애가 2일(현지시간) 호주 멜버른의 킹스턴 히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DP 월드 투어 ISPS 한도 호주오픈 2라운드 9번 홀에서 티샷 후 타구를 바라보고 있다.

신지애(35)가 일본여자프로골프(JLPGA)투어 시즌 최다 상금이 걸린 어스몬다민컵(총상금 3억엔·한화 약 27억원)에서 우승했다.

신지애는 25일(한국시간) 일본 지바현 카멜리아힐스컨트리클럽(파 72)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경기를 마친 뒤 연장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.

신지애는 이날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잡았다.

통산 1승을 기록 중인 이와이 아키에(일본) 역시 13언더파로 경기를 마쳐 신지애와 연장전을 치렀다.

신지애는 파5 18번홀에서 3번째 샷을 홀 부근에 붙이며 승리를 예상했다.

반면 이와이 아키에는 러프에서 친 3번째 샷을 그린에 올리지 못했다. 신지애는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우승했다.

신지애는 올시즌 JLPGA투어 개막전이었던 다이킨 오픈 레이디스 골프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뒤 3개월여 만에 다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.

개막전 우승 후 신지애는 직전 대회였던 아이 미야자토 산토리 레이디스 오픈을 비롯해 올 시즌 3개 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쳤지만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.

이로써 신지애는 일본 투어 통산 28승을 달성했다.

신지애는 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투어 11승, 한국여자프로골프(KLPGA)투어 20승, 기타 투어 5승을 거뒀다.

/뉴시스



키움 임창민, 100세이브 달성 23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서 열린 키움 투수 임창민이 100세이브 달성 기념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 /뉴시스

전남, 제주U-22 FW 지상욱 임대 영입

최전방 공격수·윙포워드 소화...멀티 플레이어



전남드래곤즈(이하 전남)가 제주 유니티즈(이하 제주)에서 FW 지상욱(2003년생/U22)을 임대 영입했다.

184cm 74kg의 지상욱은 용인대를 거쳐 2023시즌 제주에 입단해 9경기를 출전했다.

지상욱은 최전방 공격수뿐만 아니라 윙포워드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다. 이타적인 플레이를 통해 상대팀 골문을 위협하는 지상욱은 전남의 U22 주시전력으로 평가됐다.

전남에 합류한 지상욱은 "중간에 팀에 합류했지만 신인답게 패기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. 그리고 전남 팬분들에게 그라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면서 "마지막으로 빨리 팀에 적응해 전남이 높은 순위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각오를 밝혔다.

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지상욱은 곧바로 팀에 합류해 전남의 기존 선수들과 손발을 맞추기 시작했다. /광양=조순익 기자

최세빈, 아시아선수권 여자브르 단체 금

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체전 정상...2연패 달성



대한민국 여자사브르 대표팀 왼쪽부터 전은혜(인천중구), 최세빈(전남도청), 홍하은(서울시청), 윤지수(서울시청). /전남체육회 제공

전남도청 펜싱팀 최세빈 선수가 국제대회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.

전남도는 전남도청 펜싱팀 최세빈(사브르)이 중국 우시에서 열린 '2023 아시아선수권대회'에서 국가대표 여자사브르 단체전에 출전해 중국을 45-40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밝혔다.

최세빈(전남도청), 전은혜(인천중구), 윤지수, 홍하은(이상 서울시청)으로 구성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

은 8강에서 싱가포르를 만나 45:32로 승리하며 준결승에 진출, 준결승에서 홍콩에 45:34로 승리해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결승에 진출했다.

결승에서는 개최국인 중국을 만나 45:40으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.

한국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올해 멤버가 대폭교체 됐음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정상을 차지하며 2연패를 달성했다. /김호 기자

'데뷔도 전에' 페퍼저축은행 감독 사퇴

2월 선임 아헨 김 감독, 가족 문제로 미국으로 돌아가

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의 아헨 김(38) 감독이 데뷔전도 치르기 전에 팀을 떠났다.

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2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"아헨 김 감독이 가족과 관련된 개인 사정으로 사퇴했다. 어제(24일) 미국으로 돌아갔다"고 말했다.

갑작스러운 이별이다.

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월 아헨 김 선임 감독 선임 발표했다.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의 아헨 김 감독은 2018년부터 전미대학체육협회(NCAA) 디비전 I에 속한 아이비리그의 브라운대학교 배구팀 감독을 맡아왔다.

구단은 아헨 김 감독에 대해 "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우리 팀에 힘과 활력을 더해 팀을 이끌고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"며 새 수장 합류를 반겼다.

막내 구단인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시즌 중 성적 부진으로 김형실 감독이 자진 사퇴했고, 남은 시즌을 이경수 감독대행 체제로 치렀다.

2023~2024시즌부터는 아헨 김 감독이 지휘봉을 잡기로 했지만, 새 수장은 비시즌 중 팀을 떠나게 됐다. /김도기 기자



구단 관계자는 "갑자기 이렇게 왜 의욕이 있을 수 있지만,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다. 감독님의 가족과 관련된 개인사정이었다"고 강조하며 "구단도 충분히 고민을 한 뒤 합의를 잘 마무리했다"고 설명했다. "선수들과도 잘 지냈고, 훈련도 잘 해왔다. 선수들과 인사와 나누고 떠났다"고 보냈다.

프리 에이전트(FA) 시장에서 대어 박정이를 영입하는 등 새 시즌 반등 준비에 힘을 쏟던 페퍼저축은행은 다시 사명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. /김도기 기자

광주지역 골프 레슨의 끝판

골프 트레이닝 전문점

골프PT & 골프필라테스

제형교정 | 비거리 향상
동작분석 | 운동재활
부상방지 | 재활트레이닝
필드레슨 | 스윙체크 및 기본기

영업시간
월요일~토요일
09:00 AM ~ 21:00 PM
※ 주말은 예약필수

#광주 선수트레이닝 #광주트레이닝센터 #선수트레이닝 #골프트레이닝

Ch 광주선수트레이닝센터-골FIT[GOLF FIT]

010-7773-6661

광주 서구 시청로64 QED골프센터 2층 1호